

관인B팀, 게이트볼 最強으로 부상

제1회 노인회 포천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난 2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노인회 포천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이동해 지회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

건강증진 · 친목도모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회장 이동해)는 지난 2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노인회 포천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노인회 포천시지회 회원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치러진 이날 대회는 24개팀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길현, 원순득 선수대표의 선서와 참석한 각계인사들의 시구로 시작된 이날 경기는 종료까지 각 팀들의 각축 속에서 관인B(감독 한병선)팀이 가산 C(감독 윤동춘)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3등은 창수(감독 지오현)팀이 장려상을 산내(감독 이순근)팀,

노력상은 일동B(감독 심재선)팀이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관인B팀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2회 국민생활체육포천시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연중 개최된 각종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회사에서 이동해 대한노인회장은 "추운날씨 속에서 대회가 무사히 개최되길 바란다"며 "처음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게이트볼연합회 송주석 사무국장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몰려서 개최됐다"며 "내년부터는 일정을 조정해 3월부터 연중 분산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 체육우수지도자⑥

포천중학교 역도부 코치 손성국

“포천力士들의 요람”



포천중학교 역도부 손성국 코치(中)와 선수들이 최강 역도인으로 도약을 위해 '파이팅'을 하고 있다.

10년째 포천중 역도부를 이끌고 있는 손성국(40)코치.

손성국 코치는 포천중학교 30회 졸업생으로 현재 역도선수 양성을 위해 포천중학교 역도부의 코치로 재직하고 있다.

손코치는 포천중고재학시절인 고1 때부터 역도를 시작해 고3때 제62회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주목받는 선수였다. 또 그는 '84년 12월 국가대표에 발탁돼 91년까지 대표생활을 했다. 그 밖에 '89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금, '90년 북경아시아게임 동, '91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은, '92~'93년 서울체육고등학교 코치, '94년~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도와 함께 살고 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 속에서도 중→고→실업팀으로 이어지는 포천의 역도 환경이 자랑스럽다"는 손코치지만 "경기에 많이 집중된 역도부(13개교)가 사실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서울지역의 단 1개교의 역도부에 비해 월등한 수로 도(道)대표 선발전부터 치열한 각축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포천중 역도부는 현재 1학년 2명(형오, 용빈)과 2학년 4명(용일, 명호, 득순, 성호), 3학년 5명(규일, 수근, 형국, 준, 현영)으로 총 11명의 선수들이 내일의 역도왕을 꿈꾸며 손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중상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포천중 역도부는 손코치에 의해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주로 받는다.

"학생들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인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훈련 방침을 설명했다.

선수선발은 주로 체육시간을 활용 달리기, 유연성,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지는데, 이 조차 쉬운 일만은 아니다.

"비인기 종목이다보니 부모들도 반대하

지만, 학생 본인들도 원치 않아 선수 선발에 애로가 많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우학생이나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발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순화되고 성실해 지기 때문에 운동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굳게 믿는다. 최근 성적위주의 엘리트체육인 양성에 대해 손코치는 "성적위주의 교육이 선수생명 단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양질의 선수육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손코치는 오랜 지도자 경험으로 이런 장단점들을 극복해 내고 있다.

"포천의 경우 최근 큰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중학교선수들이 고교진학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 진학시킨다"며 "운동이라는 것이 오랜시간 기량을 연마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때 충분한 기량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손코치가 선수들과 생활하는 '역도관'은 '98년 완공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 역도관에는 현재 중학생 선수들과 포천시청대표팀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손코치는 중학생 선수들과 함께 운동해야만 하는 시정선수들이 걱정이다. "시청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관계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손코치는 포천중 역도부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해주었다. "지역에 많은 선배들이 있음에도 후배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 미약하다"며 "선배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한국최고의 역사를 키워낼 수 있는 원동력 이라고..."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운담축구회, 야간조명시설 점등식

체육 및 문화활동에 활용할 터

일동운담축구회(회장 김만진)는 지난 18일 일동면 운담초등학교에서 회원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조명시설 점등식"을 개최했다.

운담축구회 및 각종 생활체육의 경기능력 향상과 지역의 문화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은 지난날 2일부터 한달 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 10일 완공됐다.

이 시설은 포천시에서 2천만원 지원비와 축구회회원이 1천 4백만원을 부담했고, 일동면 기산리의 영광전입

사(대표 임성빈)가 공사를 맡았다.

김만진 회장은 "야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불편했었는데, 조명시설 설치로 다양한 체육행사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9월 24일에 창단한 운담축구회는 김만진회장, 박희동총무, 이운원 상임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내 각종 축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남다른 발전을 보여 주고 있는 팀으로 꼽히고 있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21일 시민 한마음 걷기(달리기)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자라울마을 입구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300여 시민 한마음 된 걷기 대회

"안전요원 배치 없어 아쉬워"

포천시 생활체육회(회장 박일서)가 주최한 '2004 시민 한마음 걷기(달리기)대회'가 21일 오전 9시부터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생활체육포천시육상연합회(회장 이민형)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포천시 승격 1주년 기념 및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청성체육공원을 출발→여성회관→골말입구→자라울마을(반환점)→골말입구→여성회관→청성문

화체육공원에 이르는 약 5km구간에서 펼쳐졌다.

걷기 대회가 끝난 후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농산물(쌀), 생활용품 등 20여종 100여가지의 푸짐한 경품이 추첨됐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한편 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걷기대회를 하는 동안에 각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시민들과 뒤섞여 달리는 등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었다"며 대회의 아쉬웠던 점을 지적했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18일 일동면 운담초등학교에서 열린 야간조명시설 점등식에 참가한 운담축구회 회원 및 주민들이 이날 행사를 축하해주고 있다.

이태리와인의 그윽함과 파스타 향기 솔솔나는 ...

베노콜레

베노콜레는 이태리아로 소나무언덕을 뜻합니다. 총1300평의 대지에7년동안 정성스럽게 조성한아름다운 소나무와절경,아름다운 들러깁 베노콜레는 그공경으로도귀하게맛과맛을 선사합니다.

베노콜레는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태리 요리를 맛보실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발맞추어 가장 신선한 재료와 식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베노콜레의 추천요리

1. **참나무 화덕에서 구어낸 칼초네 피자**(칼초네란: 피자 반죽 사이에 고기·치즈·야채 등을 넣고 만두처럼 만들어 오븐에 구운 이탈리아 전통요리) -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토핑이 가득 들어있는 피자입니다.
2. **오랫동안 우려낸 해산물 육수로 맛을 낸 스파게티 디마레** - 베니치아식 스파게티로 해산물 원래의 맛과 토마토소스의 진한 맛이 잘 어우러진 스파게티입니다.
3. **베노콜레 마블스테이크** - 일반 접시가 아닌 이태리 천연대리석 위에 올려져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스테이크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되어 고기의 촉맛을 느낄 수 있는 스테이크요리입니다.
4. **베노콜레 리조또** - 전통이태리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만든 리조또 (리조또 종류: 해산물리조또, 만쪼리조또, 양송이리조또)로 파스타나 피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www.pinocolle.com

지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무료쿠폰과 대박이벤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